

북스

Books

20세기 벌어졌던 책·도서관 파괴의 역사

책을 학살하다

레베카 크누스 지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벨기에 중부 도시 루뱅의 루뱅 가톨릭 도서관을 철저히 파괴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도서관이 6일 동안 불타면서 희귀한 중세 고서를 비롯한 책 23만 권이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1933년 나치는 유대인 저자의 작품들과 '독일의 것'이 아닌 작품들을 불태웠다. 사진은 베를린에 있는 성영구 과학원 도서관에서 책을 불태우는 장면이다.

전쟁 중에 군인들은 왜 이처럼 도서관을 철저히 불태우고자 하는 것일까. 미국 화가인 레베카 크누스 교수의 저서 '20세기 이데올로기, 책을 학살하다'는 20세기 벌어졌던 책과 도서관 파괴의 역사를 따라간 책이다.

고 자기 존중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규정한다.

책과 도서관은 대개 휴머니즘과 다원주의와 관련한 메시지를 담백 담아 사람들에게 전하려 하게 마련이므로, 극단주의적 정부는 도서관을 반대세력의 상징으로 여기고 완전히 통제하고 검열하며 '숙청'까지 한다는 게 저자의 이론이다.

실화하는 일 역시 역설적이게도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인류종교주의와 휴머니즘, 다원주의가 국제사회에서 '신념의 기본 틀'을 이룸으로써 문화학살, 책 학살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20세기 대표적인 학살 행위가 끔찍한 인종말살 사건의 전초점으로 일어나거나 또는 동시에 일어나며 전쟁과 정변같은 비극적 상황에서 이데올로기로 총칭되는 이념에 봉사하기 위해 벌어진 주요한 전략·전술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한계가 있다. 유네스코 협약, 제네바협정등과 같은 할자로 묶은 그 어떤 국제협약이라도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한낱 종이해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의 학살을 막을 대책은 없는 것일까. 저자는 이를 막을 국제적 제재 시스템을 현

〈알마출판사 제공〉



▲법정 스님 승결=1998년부터 법정 스님 과언을 맺고 법회진행을 맡았으며, 스님으로부터 지광(智光)이란 법명을 사사 받기도 했던 인문학자 변택주씨가 '법정 스님과 십 년' 인연을 갖기 에피소드를 곁들여 풀어놓았다. 조그만 일에도 천진스런 아이처럼 잘 웃고, 넘치는 유머감각은 영락없는 개그맨 수준이었던 스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한다. 〈큰나무·1만2천원〉



▲그림준=본 시리즈의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영화화한 '그림준'의 원작 소설로 '워싱턴포스트' 기자로 활동했던 라지비 찬드라세카란의 작품. 바그다드에서 종군기자로 활동했던 저자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들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담담하게 적어 내려간 것이다. 각각각층 사람들의 100여 건이 넘는 인터뷰 원문을 토대로 했다. 〈북스토리·1만3천500원〉



▲상인열전-장사를 잘하는 법, 한국을 뒤흔든 장사꾼 이야기-역사픽션 작가 이수광씨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천재적인 장사꾼 20인의 삶을 추적했다. 비천한 기너에서 조선의 거상이 된 김만덕부터 평범했던 주부 서울 변두리 보쌈집에서 시작하여 매출 6000억을 올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기업이 된 보쌈집 CEO 김순진까지 그들의 삶과 사상을 생생하게 되살렸다. 〈진영출판사·1만3천900원〉



▲예술경영=공연과 전시, 축제와 미술 등 예술의 모든 분야를 총괄무진 넘나들며 기획, 조직 및 인력 재부, 마케팅 및 홍보, 관객 개발, 펀딩 및 자금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기술했던 예술경영 개론서다. 용호성씨가 우리나라의 예술경영 특성과 변천사는 물론 서양 및 세계 예술의 흐름과 향후 트렌드까지 짚었다. 〈김영사·2만5천원〉



▲안녕, 라바=이과라 전장의 포화 속에서 승리보다 값진 사랑을 보여준 강아지 라바의 이야기이다. '라바'는 이과라 전쟁 발발 당시 지상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불리던 이과라 팔투지에서 발견된 한 강아지. 이과라 국경을 넘어 150일간 해변 해변과 라바가 나는 모험과 우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에버리치출판사·1만2천원〉



▲성찰=사마천의 '사기'를 20년간 연구하고 안역 작업을 한 역사학자 김영수씨가 '사기'를 중심으로 사회를 움직인 리더들의 제1 키워드를 '성찰'로 꼽고 이를 말, 인간과 사물, 소통, 실패, 가치, 관계 등 7개 관점으로 풀어냈다. '사기' 외에도 중국 고전들을 읽으면서 느낀 점과 우화에 담긴 의미를 정리해 풀었다. 〈위즈덤하우스·1만3천원〉



▲지식인과 자본주의=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현대의 반세계화운동까지 지식인들이 전개해 온 반(反)자본주의적 경향을 분석했다. 저자는 지식인들은 비판의 명분인 '절대적 목적의 윤리' 뿐 아니라 결과를 중시하는 '책임의 윤리'라는 관점에서도 자본주의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글북스·1만9천원〉

장왕록·영희 부녀 공역 펴낸 '대지 3부작' 출간

영문학자 장왕록(1924~1994) 교수와 그의 딸 장영희(1952~2009) 전 서강대 교수가 공역한 펴낸 '대지 3부작'이 출간됐다.



출판사측은 "고(故) 장영희 교수의 아버지 장왕록 교수는 1960년대 '대지 3부작'을 번역 출간한 적이 있는데 장영희 교수가 생전에 이를 개역하고자해서 2007년 계약했고 이제야 그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또 출판사측은 장 교수가 병상에서도 책을 놓지 않고 문맥이나 어휘를 꼼꼼히 손보는 등 정성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대지', '아들들', '분열된 일가'는 독립된 작품이지만 등장 인물이 같고 이야기 전개가 일관돼 '대지 3부작'으로 불린다.

〈삼남출판사·각권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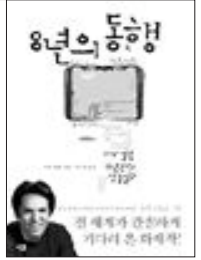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8년의 동행

미치 앨봄 지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저자 미치 앨봄이 13년 만에 또 한 번의 감동 실화를 선사한다. 책은 '모리'에 이어 앨봄이 만난 또 하나의 인생 스승 앨버트 루이스와 나눈 대화를 담고 있다. '모리'가 앨봄에게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 준 존재라면 앨버트 루이스는 그에게 삶의 보다 깊은 아름다움을 알려준 존재라 할 수 있다.

감동적 이야기는 2000년 어느 봄날 강연장에서 한 유대교 랍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앨봄은 어렸을 때 다닌 유대교 회당의 랍비 앨버트 루이스



'믿음'속에서 감사하는 삶 살아가

(별칭 캠프)로부터 자신의 추도사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그는 "추도사를 쓰려면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당신을 알아야 한다"며 만남을 제안하고 8년간 우정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주고 받은 감동적 이야기가 이번 책의 골자다.

책의 만남을 이어가던 중, 앨봄은 또 한 명의 인물을 만난다. 디트로이트의 낡고 허름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노숙자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흑인 목사 헨리 코빙턴. 미약상이자 그 자신이 마약 중독자였던 그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성직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다.

이처럼 책은 삶의 보다 깊은 아름다움을 알려준 스승들과의 대화를 통해, 겉으로는 답라 보일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계가 결국은 하나의 큰 덩어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각박하기 그지없는 현대를 사는 이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등을 통해 이야기했던 '삶의 위대함'과 '마음을 갈아낸다'.

'삶'에 앨봄은 책 출간 후 '자비의 구멍'(A Hole in the Roof)이라는 재단을 설립, 노숙자를 돌보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등 사랑, 세상과의 아름다운 동행은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 책 '8년의 동행'을 따라가다 보면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삶을 아름다움으로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진한 울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살림·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인동상실부동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인수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동신대 ~ 나주.C-국기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증개사
*상표등록 : 41-0183389호
*호 011-620-3960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월사거리)

사원 모집

당사는 부동산 중개, 분양, 경·공예 개발 전문회사로서 사제확장에 따라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모집분야, 인원, 지원자격, 비고. Includes categories like Sales, Development, and Support.

(유)코리아랜드
대표전화 959-1033, 010-7723-10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483번지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62-236-3400

a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물건리포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Table with multiple columns showing real estate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price, and agent information.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제 전문가과정' 수강생모집
정원 50명 (15주과정) 상담 및 접수 236-3400